

보도자료



보도 일시	2022. 10. 24.(월) 즉시배포			
담당 부서	재난관리실 재난관리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범석 (044-205-5110)
		담당자	방재안전전문관	김경찬 (044-205-5125)
조류독감	재난협력실	책임자	과장 직무대리	강민서 (044-205-6192)
방역 담당	가축질병대응과	담당자		
한파 담당	재난관리실 자연재난대응과	책임자	과 장	강성희 (044-205-5230)
		담당자	방재안전사무관	박승주 (044-205-5236)

행안부, 겨울철 재난 대책을 위해 선제적 재정 지원

- 고병원성 조류독감 방역비, 한파 대책비에 재난안전특교세 138,76억 -

- □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**올겨울 고병원성 조류독감과 한파**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38.76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다.
 - 이는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류독감 방역대책비로 78.76억. 한파 대책비로 6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.
- □ 우선, **조류독감 방역대책비**는 지난 절기('21년 10월~'22년 2월) 대비 가금 농장의 조류독감 발생일이 약 **3주 정도 빨라짐***에 따라 **전국적 확산** 방지를 위해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다.
 - * 2021년 11월 8일 → 2022년 10월 17일
 - 특히, 올해 유럽·미국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률이 작년 대비 82.1% 증가하여 철새 간의 교차 감염으로 인한 바이러스 국내 유입 우려가 매우 높아 철저한 차단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.
 -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지역 간 이동이 많은 축산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, 가금 농가 주변 및 철새도래지 소독 등 초기 대응을 준비하는 데에 사용될 계획이다.

- 또한, 행정안전부에서는 조류독감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(10.12.)에 따라 「조류독감(AI)대책지원본부」를 구성·운영 중이며, 지난 10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지방자치단체 가금농장 전담관제 운영 실태,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·운영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별 대응 태세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.
- □ 다음으로, 올겨울 추위를 대비하여 **한파 대책비 60억 원**을 지원한다.
 - 올해 말까지 라니냐*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첫 한파특보가 지난 10월 17일 발령되었고, 평년보다 10일이나 일찍 첫서리가 내리는 등 올겨울 평균기온은 여느 해와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전망되어 행정안전부는 관련 시설 및 대응 태세 전반을 사전 점검하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.
 - * 동태평양 적도 지역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.5도 이상 낮은 저수온 현상이 5개월 이상 일어나는 현상으로 라니냐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
 - 이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**한파 대책비**는 온열 의자, 방풍 시설 등 **한파 피해 저감 시설 확충**,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위한 방한용품 지급 등에 사용하게 된다.
- □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"조류독감 및 한파 등 매년 반복되는 겨울철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빈틈없이 대비해 주길 바란다"라며,
 - "행정안전부도 **겨울철 재난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**할 계획" 이라고 밝혔다.

